Appendix 1. Stories for assessment

The Story of Set A
뽀로로와 친구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먼저 뽀로로가 커튼을 밀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커튼이 열리자 친구들이 여러 악기를 들고 앉아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다들 긴장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뽀로로는 지휘를 했고, 에디는 바이올린을 켜고, 크롱은 트럼펫을 불고, 포비는 힘차게 북을 때렸지요. 사람들은 신나는 연주에 춤을 추기도 하고, 슬픈 연주에는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주회는 멋지게 끝이 났어요. 뽀로로는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고 만세를 했답니다.
The Story of Set B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에요. 푹 자고 일어난 뽀로로는 포비에게 공놀이를 하러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공원으로 나와서 신나게 공을 주고 받으며 놀았어요. 그런데 신이난 포비가 뽀로로에게 공을 너무 세게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뽀로로는 공에 맞지 않기 위해 재빨리 옆으로 비켰죠. 하지만 공이 너무 멀리 날아갔는지 뒤돌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집에 가려는 순간, 포비가 나무 뒤에 있는 공을 발견했어요. 두 친구는 너무 기뻐 공에 뽀뽀하며 크게 웃었답니다.

Appendix 2. Stories for intervention

The Story of Set A
오늘은 뽀로로의 생일날이에요. 뽀로로는 생일케이크의 촛불도 불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춤도 췄어요. 그 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크롱이 보였어요. 커다란 선물을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디가 장난으로 크롱을 밀었지 뭐에요. 깜짝 놀란 크롱은 선물을 떨어트리고 말았죠. 화가 난 크롱은 에디를 때렸고, 에디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뽀로로가 얼른 달려와서 크롱과 에디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며, 화해의 의미로 악수를 하게 했어요. 화해를 하고 에디는 미안한 마음에 크롱의 선물을 주워주었는데, 크롱의 선물이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뻐서 함께 만세를 했답니다.
The Story of Set B
늦은 밤 뽀로로와 페티는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야 잘 준비를 해요. 잘 자라는 인사로 서로에게 뽀뽀도 하고, 침대 속에 들어가 편히 자려고 했죠.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뽀로로는 페티를 돌아봤지요. 하지만 페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비켜봐, 내가 확인해 볼게.” 뽀로로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페티는 뽀로로에게 조심하라며 베개를 주었어요. 뽀로로는 방 밖으로 나가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베개를 던졌어요. 그러자 아기 고양이가 놀라 도망쳤어요. 뽀로로는 웃고 말았답니다.